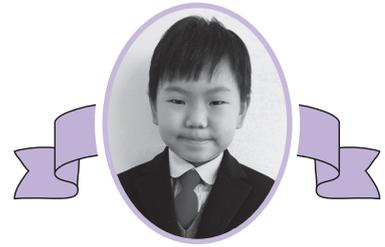


동상





할아버지 농장은 아름다운 우리 국토



도예찬 | 대구 영신초등학교 1학년

이번 주말 할아버지 농장에 갔었다. 농장에서 꽃과 나무랑 많은 다른 식물들을 보았다. 할아버지 농장에는 많은 것이 다 예쁘게 되어있었다. 농장은 아주 활기찼다. 그 동안 비도 많이 왔고 흙도 좋아서 식물들이 무럭무럭 잘 자랐다. 할아버지 농장 이름은 청마농장이다. 왜냐하면 파란 말처럼 활기차기를 바라서이다. 할아버지께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연의 흙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할아버지 농장에서 아기를 업고 있는 여치를 보았다. 금빛 나는 소나무가 있었고 무화과도 있었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카메라로 할아버지 농장 곳곳을 많이 찍었다. 그리고 형이랑 같이 호미와 삽으로 밭의 흙을 부드럽게 했다. 흙을 부드럽게 만들면 지렁이가 잘 돌아다닐 수 있고 식물들이 쑥쑥 잘 올라올 것이다. 할아버지께서는 위험하다고 걱정하셨지만 형과 나는 새싹들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할아

버지 농장은 우리 국토이다. 우리 국토 덕분에 내가 옥수수, 블루베리, 고구마, 그리고 다른 많은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다 우리 국토 덕분이다. 나는 우리 국토를 사랑한다. 우리는 국토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토에 쓰레기도 버려지고 우리 땅을 상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나의 장래희망은 과학자이다. 백년 뒤에는 쓰레기도 많이 버려질 것이고 국토가 더 상할까봐 더 걱정이다. 그래서 30년 뒤에는 내가 우리 국토를 지키는 로봇을 만들 것이다. 그 로봇이 지렁이도 땅에 많이 살게 해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가 상하는 일은 아주 슬픈 일이다. 나는 할아버지 농장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국토를 사랑한다. 과학자가 되어 로봇을 만들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길가의 쓰레기 줍기부터 하겠다.

국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니까 우리도 국토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 국토를 많이많이 사랑할 것이다. “국토야! 파이팅!”